

다산포럼

‘겁 많은 자의 용기’를 넘어서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부사장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굴욕을 당했지만 결국 “더 이상 개처럼 살지 않겠다”는 인간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부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는 뜻하지 않게 투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피고용자들에게 사용자는 사실 무서운 존재다. 모욕을 참다가 세습 고용주의 비상식적인 폭력에 반기를 든 박 사무장과 같은 행동은 극히 예외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시대의 ‘미생’들은 ‘갑’의 횡포 아래에서 그날 굴욕을 씹으며 살아간다. 오늘 한국의 기업 조직에서 피고용자는 ‘머슴’에 가깝다.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상식을 지키는 일도 엄청난 돌출

행동으로 찍혀 돌을 맞고, ‘머슴의 덕목’이 칭찬받는 세상에서는 ‘인간 선언’도 고행의 길을 예비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신년 인사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강조하면서 복종을 소신보다 앞세웠고, 법원은 조직 비리를 고발했다가 처벌·해고된 사람들의 소송 사건을 다룰 때,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범죄나 기업비리의 고발자나 사학 비리의 제보자들은 양심과 직업 윤리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따돌림, 모욕과 폭언, 해고 조치를 피할 길 없고, 생계곤란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황우석 논문조작을 고발한 류영준 연구원, 청와대의 불법사찰 비리를 고발한 장진수 주무관, 경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축소수사를 고발한 권은희 경정, 윤일병 폭행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병장,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 국민을 속인 KT를 고발한 KT 직원 이해관 등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공권력과 기업의 불

법, 비리, 거대한 거짓의 덩어리는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것이다. 작고한 아동문학가 권정생은 “혁명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면 희생을 해서라도 바로 고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혁명가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영웅이라 불라도 좋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력감, 그리고 권력집단과 언론이 퍼트리는 ‘자기 완결적인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즉 “아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 가만히 있어라,”라는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쳤다. 70년대 유신 반대운동에 나섰던 이문영 선생이 ‘겁 많은 자의 용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겁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최소주의’ 원칙만 지키더라도 권력을 뒤흔들 수 있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의 소신 행동은 애초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양심적 제보자만 나와도 진실이 완전히 공개되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겁 많은 소시민과 피고용자들이 이런 용기를 발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조직이야말로 얼마나 한심하고 취약한가? 여전히 우리는 이런 투사,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나? 물론 호루라기를 불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칭찬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우가 따라야 하고, 그들이 생계 곤란을 겪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금과 시민단체에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고, 사회의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내의 소통과 감시, 내외부의 견제 장치다. 이 점에서 노조의 공익적인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물론 재벌기업의 기업 지배구조도 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사법정의와 언론의 공정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처벌되어야 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묵인한 조직이 변해야 한다. 올미년 양의 해, 양갈이 순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투사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질서’와 ‘효율’의 이름으로 구성원의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지 말자.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여, 진정으로 살맛 나는 조직과 세상을 만들자.

社 說

의혹만 키운 ‘정윤희 문건’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이 5일 발표한 ‘정윤희 문건’ 중간수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정윤희 문건’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이 문건이 조용전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 측에 전달했다는 게 수사의 요지다. 또 정윤희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소위 ‘십상시 회동’ 자체가 없었으며, 정씨와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 간의 권력 압투설을 촉발시킨 ‘정윤희의 박지만 미행’도 박 경정이 날조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5주 간의 수사를 거쳐 내놓은 것은 문건이 전면 조작된 ‘짜리시’임을 밝혀냈다는 것뿐이다. 박 경정이 왜 이런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는 지, 정씨와 박 회장을 이간질하는 보고서를 날조한 이유와 배후는 누구인지 등 의문점은 수두룩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선 실세들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은 검찰이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박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 시점에서 “문건 내용이 짜리시에 나오는 루머 수준”이라는 언급 자체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권력 압투와 인사 개입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 관행에 비추어 진실이 규명될지 의문이다. 검찰이 이 정도의 선에서 사건을 덮고 간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국정조사 내지 특검이 거론되고 있지 않는가. 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불통 및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무관치 않은 만큼 소통과 과감한 인사개혁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 복지비 탓에 현안사업도 못하더니

광주지역 각 구청들이 새해 들어 복지비 부담이 늘면서 복지예산은 물론 급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현안사업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과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복지 디폴트’마저 우려된다. 동구청은 기초연금 등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그동안 내실 있는 복지정책으로 호평받았던 출산장려금 지원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북구는 관내 초·중학교 급식 보조비 절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무원 급여와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지급 비용 30%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구는 예산난으로 광천동의 500m도 못 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5년째 진행 중이며 구립어린이집 신축·이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구도 기초연금 부담액 중 30% 정도인 17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공무원 급여 30%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구청 모두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30%를 훌쩍 넘어 50%에서 최고 63%까지 급증했다. 살림살이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비만 늘어난 꼴이다. 오죽하면 지자체 재정이 부도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요구하는 기초연금 국비 보조 90% 이상으로 확대와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늘려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합합, 복지비 누수 방지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도 기업유치나 관광자원 개발 등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세수 확대를 통해 복지강화에 나서야 하며 선심성 사업 등 예산 낭비요인은 과감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박 진 순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1학년

겉은 몰라도 속은 고등학생 티를 완전히 벗지는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가고 곧 2학년을 맞는다. 방학기간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교수님들마다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조언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조리 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한식과 양식, 일식, 중식은 물론 제빵제과에 관한 자격증

‘소포머 징크스’를 깨는 건 다

(Sophomore=대학 2학년생)

을 빨리 갖고 싶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처럼 큰 곳에서 일하려면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방학 기간에 틈틈이 여행도 하고 싶다. 여행은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견문과 경험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차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으로서 첫 해를 나름대로 뜻있게 보냈다. 가장 값진 것은 2학기 동안 대학본부 홍보실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한 아르바이트였다. 1주일에 12시간,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6시간씩 홍보실에 가서 교직원용 보조하며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을 얻었다. 커다란 복사가기를 다루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면서도 무척이나 복잡했다. 우리 대학에 대한 신문·통신·방송 기사 복사물들을 총장실과 처장실·원장실

에 배포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였다. 교직원들이 지시한 일을 까먹고 안하거나 잘못 처리했다가 혼난 적도 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학교라는 큰 조직이 돌아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내 또래들보다 먼저 사회경험을 했다고 말하면 너무 건방질까. 또 홍보실 직원의 주문에 따라 우리 호텔조리학과와 실습과정에 관한 사진·글들을 학교 홍보 블로그에 올렸다. 실습 중간에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게 번거롭고, 또 실습과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블로그 작업을 하며 불평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일을 하나씩 성취하면 또 다른 자신감으로 가질 수 있고, 내기 원하지 않

았던 일도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소포머(Sophomore)는 영어로 대학교 2학년생을 뜻하는데, 소포머 징크스(Sophomore Jinx)란 말이 있다. 히트한 영화는 후속편이 전편처럼 히트하기 힘들고, 첫 번째 앨범을 성공한 가수가 두 번째 앨범도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스포츠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신인선수가 그 다음해 부진했을 때 표현하는 ‘2년차 징크스’ 같은 것이다. 2014년 Freshwoman(대학교 1학년생) 생활을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보냈다. 2학년인 2015년에도 소포머 징크스를 깨뜨리고 더 알찬 대학생활을 하리라고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가오는 기회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여 기회를 만들어, 나의 꿈인 최고의 조리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기 고

새해에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 동 범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전 광주교총 회장

청마의 해가 저물고 201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너무나 참담하고 암울한 한 해였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관피아, 철피아로 정의 사회가 구현되지 못했고 감자의 횡포인 슈퍼 갑질, 고위직의 성추행 사건, 사자방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청와대의 비선 실세 논란 등 우리 국민은 불안전공화국에서 일년을 보냈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은 어떠한가? 혁신 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문제, 9시 등교, 무상급제 오류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곧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바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해야 한다.

교육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갈등과 반목의 장(場)이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교육계가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여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는 추상적 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신신하게 다가가길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올바른 교사상’ ‘바람직한 학부모 역할’ ‘학교와 학부모 관계’ ‘학생의 미래상’ 등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진 학부모 교육열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학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학생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학인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선 선생님과 학부모가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진정한 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 ‘올바른 교육’과 ‘훌륭한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온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正)교육’, 즉 올바른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길만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향존성’을 갖는 것이다. 플라톤은 ‘의견의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라고 하였다. 교육이 시류에 따라, 이념에 따라 또는 정치권력의 취향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간다면 어찌 향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향존성을 갖기 위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권회복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원의 자존심과 자긍심 회복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권 보호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둘째,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을 해야 한다. 기초교육이 교육의 밑바탕을 다지는 일이며 여기에 인성교육의 뿌리를 찾아내어 인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다. 인성이 바로 서지 않은 교육은 창의적인 도둑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와 창조도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이 ‘교실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설파한 점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할 수 있다. 셋째, 영재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창의성과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며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결국 자·덕·체·기에 관한 것이다. 삶을 품어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의 함양,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능을 개발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육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공교육을 살려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시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향존성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다. 정처없이 흘러가는 배를 방북케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이며, 교육인국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無 等 鼓

상황문자 ‘양(羊)’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면 양의 습성과 특징을 집적할 수 있다. 아름다운(美)과 상서로움(祥), 착함(善), 정의로움(義)이 모두 羊에서 비롯됐다. 큰 대(大)에 羊을 더하니 아름답다는 미(美)가 됐고, 나 아(我)가 羊을 만나 옳을 의(義)가 됐으니 곧 정의를 다는 의미다. 하늘의 길흉화복을 나타내는 시(示)와 그 하늘에 양을 제물로 바쳐 기복의 의미를 나타내 ‘운수 행운을 부르는 양’ 뜻으로 쓰였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부드러움과 끈기의 상징으로 묘사됐다. 피천득은 1932년 발표한 시 ‘양’에서 양의 마음씨를 회고 부드럽고 정다운 이미지로 표현했다. “羊아, 羊아/ 네 마음은 네 몸가티 희고나/ 羊아, 羊아/ 네 마음은 네 털가티 보드럽고나/ 羊아, 羊아/ 네 마음은 네 읍성가티 정다운고나” 윤복진의 동화 ‘어린 양이 보내준 무명화’ 속 어린 양은 이리에게 형제를 모두 잃고 이리에게 맞서 싸우다 죽는다. 어린 양이 남긴 털과 뼈는 임금님의 병을 고칠 꽃나무가 된다. 이리에게 맞서는 어린 양의

모습은 양의 끈기와 희생을 상징한다. 중국 소수민족인 ‘시보족(錫伯族)’의 풍습에선 모두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덩이다. 시보족은 결혼식 당일, 신랑측과 신부측 사람들 사이에 양의 다리뼈를 놓아둔다. 술이 서너잔 돌면 양측 친척들 앞에 놓여진 다리뼈를 먼저 가져가려는 경합이 벌어진다. 신랑 측이 가져가면 신랑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며 아내를 잘 돌봐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신부 측이 가져가면 신부가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고 믿는다.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 변방의 초야에 묻혀 있을 적에 희한한 양꿈을 꾸었다. 산속에서 양을 잡으려하자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져버렸다.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깬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물으니, 무학대사는 “양(羊)의 뿔과 꼬리(I)가 떨어져 나갔으니 왕(王)이 될 꿈이다”고 해몽해 주었다.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청양(靑羊)의 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